

중산층 가정소설과 불안의 상상력

: 강신재의 장편 연재소설을 대상으로

김은하*

1. 서론
2. 중산층 가정과 소녀들의 통과제의
3. 희생자 의식과 심미적 불륜 소설
4. 여성·여성성에 대한 파괴적 환상의 미학
5. 결론

국문요약

1960년대 중후반 본격적인 근대화의 성과가 나타나면서 중산층은 근대화의 주체로 떠올랐으며, ‘행복한 가정’은 한국 근대화의 갈등 지점을 포착해 모순과 병폐를 들추고 이를 해결해가는 상징적 장이자 근대화에 대한 대중의 동의를 유발하는 집단소망의 이미지가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건전한 중산층 문화 육성의 주체로서 여성이 제시된다. 중산층 여성·가정주부는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도덕적으로 건전한 스위트 홈의 표상이었으며 ‘현모양처’는 여성들의 자기실현의 표상이 될 정도로 전사회적인 차원에서 ‘가정성 숭배 현상’이 발생한다. 이는 60년대 근대화 사업이 근대국가와 가정 그리고 여성을 상호적으로 이으면서 진행되었음을 암시한다.

다른 한편으로, 중산층 가정은 평등하고 친밀한 사적영역에 대한 여성들의 소망의 대상이었다. 여성들은 중산층 가정에 대한 여성들의 동경과 기대를 적극적으로 창출해낸다. 그러나 6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여성을 주 독자로서 삼은 연재물들은 스위트 홈에 관한 의혹을 가시화한다. 사회가 여성의 미덕을 찬미할수록 여성들의 희생의 비극성이 표현되고 스위트홈에 대한 낭만적 환타지는 공포의 그림자와 뒤섞인다.

본 연구는 강신재의 일련의 소설을 대상으로 여성문학의 통속적, 대중적 요소를 통속 소설의 본래적 특징으로 단순 환원하기보다, 근대화, 중산층 가정, 여성성 등에 담긴 비밀을 포착하려는 의욕의 소산으로 보려 한다. 풍요로운 중산층 가정을 서사의 무대로 등장시킴으로써 성평등에 대한 여성들의 동경과 회의, 여성적 권력에 대한 기대와 불안 등

* 경희대학교 한국어학과 강사

을 표현해 냈다고 보는 것이다. (주제어: 중산층 가정, 중산층 여성, 가정성 승배, 근대화 프로젝트, 여성작가, 대중소설, 하위문화적 반란, 불안, 1960년대)

1. 서론

중산층은 그 지시대상이 모호하고 정의 역시 불충분하다는 점에서 말쑥 많은 개념이다. 신광영에 따르면 중산층은 소득이 일정 수준에 도달해 경제 생활이 안정되고, 노동자나 농민의 수준을 훨씬 넘는 여가 및 소비 생활을 영위하는 사회집단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가 중간 정도의 경제수준이고 자기 자신이 어떤 수준에 속하는가를 대부분의 사람은 알지 못할 뿐더러,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관적으로 자신들이 중산층에 속할 것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엄밀한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정의내릴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또한 중산층은 대체로 중간계급(경영관리직, 전문직 및 기술직 종사자)과 소득이 높은 프리부르주아지인 자영업자(도시 자영상인과 농촌 자영농)을 가리키지만, 때로 각자가 염두에 두고 있는 의미는 다 다를 수 있다.¹⁾ 중산층은 1960년대 중반 군사독재체제하에서 ‘계급’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게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되기 시작한 신조어인 까닭에 그 뜻이 더욱 모호하다. 그런데 이렇듯 중간층도 아니고 중산계급이 아닌 모호한 용어가 사회과학계 안팎에서 널리 쓰이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중산층에 관한 최초의 논쟁 속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중산층이라는 용어의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릴 수 없는 까닭은 1960년대 지식학계의 대표적인 사건인 ‘중산층 논쟁’ 속에서 중산층

1) 중산층은 학자들에 따라 진보 혹은 보수적인 집단으로 평가되기도 하며, 소시민으로 동일시되기도 한다. 이렇듯 모호한 개념에도 불구하고 중산층은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학계 내외를 막론하고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신광영, 『한국의 계급과 불평등』, 을유문화사, 2004, 246-247쪽.

이 한국 근대화를 이끌어 갈 이상적인 주체로 가시화²⁾된 점과 관련이 있다. 중산층 논쟁은 1960년대 초 근대화 경제개발이 실시되자, 중산층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근대화를 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시작되었다.³⁾ 60년대 중산층 논쟁의 핵심은 근대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중소기업 육성을 두고 벌어졌는데, 이는 식민성을 벗어난 자주적 근대화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강했음을 암시한다. 특히 중산층 논쟁은 부도덕한 재벌, 파행을 일삼는 재벌에 대한 사회적 혐오가 극대화되면서 더욱 기대를 모았다. 당시 재벌은 매판 기업으로 불린 데서 알 수 있듯이 서구 경제에 종속된 이름으로 간주되었다. 이는 중산층에 대한 기대가 단순히 근대화에 대한 열렬한 지향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주체적 근대화에 대한 기대를

-
- 2) 중산층 논쟁은 1966년 한 해 동안 주로 『정경연구』, 『청맥』을 중심으로 경제학자인 임종철과 신용하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졌다. 일제시대에 등장한 중산계급이나 중간계급이라는 용어 대신에 중산층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썼다는 점이 이색적이다. 주로 중산층의 운명을 둘러싼 이 논쟁은 중산층은 몰락할 수밖에 없는가 아니면 육성, 발전시켜야 하는가를 둘러싼 규범적인 논쟁에 초점을 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논쟁의 과정에서 중산층을 근대화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갈 실질적 상징적 구심점으로 이상화했다. 신용하, 「중산층 논쟁의 총결산」, 『청맥』(1966년 8월호)을 참고할 것.
- 3) 중산층 중심의 국가근대화의 필요성은 박정희의 연설에서 강조되었다. 홍석률은 지식인들 사이에서 벌어진 중산층 논쟁은 비록 부분적으로는 재벌 중심의 경제개발정책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근대화정책의 근원적 한계에 대해 주목하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중산층 논쟁을 크게 중소기업 육성여부를 둘러싼 논쟁과 신중산층 논쟁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 육성론자들은 중산층을 수공업자, 중소기업, 중소기업, 자영농 등 독립자영업자, 소부르주아 층으로 한정하고, 독립자영업자, 특히 중소기업가를 육성해야 한다고 보았다. 고용을 창출하고, 자립적 민족경제의 발전을 꾀하고, 재벌을 견제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어 논쟁을 불러 일으키게 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신중산층 육성론자들은 중산층을 중소기업가, 자영농 등 독립자영업자를 의미하는 ‘구 중산층’과 산업화로 행정, 기업 조직이 거대화됨에 따라 등장한 중간관리자, 즉 신중산층, 즉 공무원, 기업 조직의 관리자와 사무원, 기술자, 변호사, 의사, 기자 등 화이트 칼라 중산층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했다. 이들은 근대화가 곧 서구화라는 전제 하에 현재 신중산층 형성은 미미하지만 기업들이 성장하고 결국 한국사회를 주도할 세력으로 등장할 것이기에 근대화와 민주주의의 주체라고 보았다.

담고 있음을 암시한다. 배성동은 “이런 뜻에서 근대화는 곧 서구화(西歐化)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近代化=西歐化란 等式이 성립하는 것은 고유의 민족문화를 갖지 못하는 경우일 것이다. (중략) 근대화란 이처럼 낡은 전통적 문화에서 새로운 합리주의적 민족문화를 창조하는 하나의 종합적인 역사현상이다.”(480-481쪽) “후진국의 근대화는 산업의 구조적 변혁과 제도 변혁을 내포하는 일종의 사회개혁인 동시에 그러한 산업구조와 제도에 발판을 둔 전통적 사회세력이 새로운 근대적 사회세력으로 교체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두되는 하나의 문제가 작금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중산계급의 문제이다.”(482-483쪽)라고 함으로써 중산층 논쟁이 궁극적으로 근대화의 주도 세력을 가리는 문제임을 암시하고 있다.⁴⁾

이러한 논쟁의 과정에서 중산층의 이미지가 구성되었다. 먼저, 중산층은 중간층 혹은 중류층으로도 쓰이며 서민과 대비되면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집단으로 여겨졌다. 배성동은 중산층을 “중간 정도의 생활 수준(시민적 생활양식과 교양 및 소비성향)을 갖춘 층”⁵⁾으로 풀이한다. 무엇

4) “한국에서 ‘중산층’은 ‘중간계급’도 아니고 ‘중간소득계층’도 아닌 그러면서도 이들 속성을 함께 아우르는 한국사회 독특한 개념이다. 한국사회에서 통용되는 중산층은 ‘생산관계’에 의해 기본적으로 구분되는 맑스의 계급개념과는 크게 다르며 또한 ‘시장상황’에 의해 구분되는 베버의 계급개념과도 다르다. 굳이 서구 계급·계층론의 전통에서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중산층’ 개념을 찾는다면, 베버가 계급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설정한 지위집단에 가깝다. 베버는 ‘지위집단’을 설정했을 때,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있었으며, 여기서 공동체란 경제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계급과 달리 생활양식, 공식교육, 직업적 위세 등을 공유하는 집단을 말한다. 단순화시켜 본다면 계급이 경제적 요소를 중심으로 구성된 단일척도의 개념이라면 지위집단은 비경제적 요소까지를 포함하는 복합척도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홍두승, 『중산층의 확대와 양극화의 해법』, 『한국사회학회 기타간행물 한국사회학회 중산층 역할과 사회발전 제1차 포럼』, 2006. 3, 5쪽.)

5) 배성동, 『중산층의 정치적 의의: 모든 논의들의 종합에서』, 『청맥』 66년 5월호, 청맥사, 182쪽.

보다 중산층은 경제적, 사회적 안전의 추구, 저축의욕, 자기책임, 상승 노력 등을 가진 층으로서 재벌처럼 부도덕한 집단과 구분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중산층은 사회적 기대를 모으는 건실한 계층으로서 이상화되었다. 중산층=소시민의식의 도식이 제출된 것은 1970-80년대 들어서이다. 김예림에 따르면, 60년대에 중산층 논의가 등장한 것은 건전한 문화 향유와 생산 주체로서의 중산층 집단의 비후화가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⁶⁾ 『사상계』에서 마련한 방담에서는 문화 정책의 빈곤, 군부 이후 더 심화된 대중오락의 상업주의 그리고 일본문화의 폐해가 발생하는 이유로 “건전한 의미에서의 중산층”이 부재한다는 사실이 사회적 후진성의 증거로 채택되었고, “오락문화를 견제할 수 있는 본격적인 문화가 사회적인 세력을 이루려면 그 담당자가 현대에 있어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중산층입니다”⁷⁾라는 견해가 제출되는 등 60년대 중후반 본격적인 근대화의 성과가 나타나면서 중산층은 근대화의 주체로 떠올랐다.

이렇듯 ‘중산층 가정’은 한국 근대화의 갈등 지점을 포착해 모순과 병폐를 들추고 이를 해결해가는 상징적 장으로 부상한다. 중산층 가정은 한국의 근대화에 대한 대중의 동의를 자연스럽게 유발하는 문화적 상징이었다. 특히 건전한 중산층 문화 육성의 주체로서 여성이 제시됨으로써 중산층 주부는 중산층 문화의 대표적인 표상이 된다.⁸⁾ 중산층 여성-가정주부는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도덕적으로 건전한 스위트 홈의 표상이었다.

-
- 6) 김예림, 「1960년대 중후반 개발 내셔널리즘과 중산층 가정 판타지의 문화정치학」, 『현대문학의 연구』32호, 2007, 348쪽.
 7) 고영복·송건호·송옥·신일철, 「<방담>: 생활문화없는 한국-문화적 현실과 정치적 현실」, 『사상계』 146호(65년 5월호), 사상계사, 201쪽.
 8) 한국 중산층 가정에서 주부역할은 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초반과 중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를 겪는다. 이 시기 주부는 유교 전통적 요소 외에 서구 근대적 요소가 적극 도입되어 그 역할이 광범위하고 복잡해졌으며, 주부일의 가치가 재평가됨에 따라 식모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점차로 높아져 갔다. 다나자키 아쓰코, 「현대 한국중산층 주부역할 형성과정에 관한 분석-6,70년대 여성잡지를 중심으로」, 서강대 석사논문, 2001.

용신봉사상·알뜰한 주부상, 가계부 적기 운동⁹⁾ 등 여러 사업이 말해주듯 여성은 부강하고 건강한 근대국가의 기수였다. 신건에 따르면 여성지도자들에게 의해 ‘현모양처’상이 여성들의 사회적 성공의 모델로 제시되었는데, 이러한 사회적 맥락은 서구의 ‘가정성 숭배’현상의 발생 맥락과 유사하다.¹⁰⁾ ‘가정성 숭배’라는 사회적 현상은 가정과 가족을 미화하는 한편 가족을 사회적 덕목과 개인적 도덕구현의 장으로 개념화하였다. 특히 가정성 숭배의 분위기는 여성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수용되었다. 이는 근대화 사업이 근대국가와 가정 그리고 여성을 상호적으로 이으면서 진행되었음을 암시한다.¹¹⁾

중산층 가정은 여성들이 이상적 여성성을 증명함으로써 사회적 인정을 얻고 평등하고 친밀한 사적영역에 대한 기대를 만족시켜줄 대상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60년대 후반의 여성문학은 스위트 홈에 관한 의혹을 가시화하고 있어 문제적이다. 여성의 미덕이 찬미될수록 기실 희생의 비극성이 고조되고, 중산층 스위트홈에 대한 낭만적 환타지는 공포의 그림자와 뒤섞이기 때문이다. 한국문학에서 가정은 지식인 남성들이 저항적인 자기 주체성을 구축하기 위해 벗어나야 할 장소로 상징화된다. 여성, 여성성, 집은 남성의 주체성을 붕괴시키는 위협으로 그려지는 것이다. 그러

-
- 9) 알뜰한 주부상이나 가계부 적기 운동은 5-60년대를 대표하는 중산층 여성잡지 ‘여원’의 주요 사업이었다. 발행사인 여원사는 별책부록으로 가계부를 발행하는데, 이는 이후 1990년대 초중반까지 여성잡지 발행의 공식으로 자리잡는다.
- 10) 신 건, 「1960-70년대 근대화 프로젝트와 여성담론에 관한 연구-여성단체협의회 『여성』지 분석을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논문, 2001.
- 11) 이는 산업화-근대화 과정에서 생산이 비혈연 조직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생산조직, 또는 일터에서의 인간관계가 계약적인 관계로 변하게 되고 핵가족은 비정한 사회에 둘러싸인 안식처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었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이 결과 공사의 엄격한 구분이 생기고 성역할에 있어서도 남자의 도구적 역할과 여자의 정서적 역할로 분리하는 이데올로기가 대두하게 된다. 김은희, 「일, 가족, 그리고 성역할의 의미-한국의 산업화와 신중산층의 가족 이념」, 『사회와역사』 제39권, 한국사회사학회, 1993. 6, 81쪽.

나 기실 여성작가들의 가정에 대한 재현은 극도로 분열적이다. 이렇게 볼 때, 1960년대 중후반 중산층 가정-여성성의 지배 규범이나 이데올로기에 동의하거나 이탈하는 작품들을 살펴봄으로써 그간 시류에 영합하는 통속적 ‘여류’로 치부된 여성작가들의 창작활동의 의미를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6-70년대는, 여성 작가층이 두텁지 않음에도 여성작가들이 연재를 맡은 비중이 높아 여류문학=매스컴 문학=에로문학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¹²⁾ 이와 함께 여성독자-여성작가-대중성-상업성-하위문화라는 도식 역시 성립되었다. 그러나 윤병로의 비판처럼 여성작가들의 창작활동의 의미를 “오늘의 매스컴의 생리에 누구보다도 앞질러 영합해”가는 상업작가다운 약삭빠름 탓으로 환원할 수 없다. 당시 여성소설의 통속적, 대중적 요소는 상업소설의 본래적 특징으로 단순 환원하기보다, 근대화, 중산층 가정, 여성성 등에 담긴 비밀을 포착하려는 의욕의 소산이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작가들의 소설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중산층 가정을 소설의 배경으로 등장시킴으로써 성 평등한 근대적 가정에 대한 여성들의 동경과 그것의 실현 불가능성에 대한 회의, 여

12) “본래 여류문학이란 것이 문단의 부산물인지 몰라도 그것이 더욱 각광을 받고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었을까. 이 해답은 여류들의 작품들이 어떠한 마력으로 독자들을 매혹시킬 수 있었던가 하는 얘기가 된다. 작가가 자기의 영토를 넓혀 가는 첩경으로 매스컴에 재빨리 편승해야 한다는 것은 거의 낡은 상식이다. 많은 여류들이 남성작가들 보다도 선천적인 기질을 심분 발휘해서 민감히 적응했던 탓이라고도 풀이된다. (중략) 굳이 그 사연이란 남성작가들이 본격문학이란 좁은 영토 속에서 담보하고 있을 때 여류들에겐 많은 여성지와 중간지로 그 발표무대를 얼마든지 뻗어 갈 수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정을 감안할 수 있다. 거기에는 여류들이 애초에 순문학이나 본격문학에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오늘의 매스컴의 생리에 누구보다도 앞질러 영합해 갔다는 것도 지적할 수 있다. 실상 오늘의 인기소설이란 것이 거의 에로물이고 그 작가가 바로 일부 여류명사들이라는 것을 상기한다면 지나친 얘기라고 목살하기 어렵다. 비단 에로문학이 여류들에 의해서 성행된 것은 아니더라도 그 베스트의 작가로 여류명사들이 장식해야 한다는 것을 슬픈 현실이다.”(윤병로, 『현대 여류 작가의 문학적 성향』, 『한국현대소설의 탐구』, 범우사, 1980)

성적 권력에 대한 기대와 불안 등을 표현해 내고 있다. 국가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여성계몽의 목소리를 내온 근대화기 “여류”명사들의 중산층 가정과 여성성에 대한 그로테스크한 이야기는 여성독자를 대상으로 한 대중·통속 소설의 하위문화적 전복성을 암시한다.

강신재는 해방 이후 등단한 여류작가의 행로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50년대에 단편 창작에 뛰어난 재능을 발휘한 강신재는 60년대 중반부터 여러 편의 일간지나 잡지에 연재를 담당하면서 등 대중적 취향의 소설을 썼다. 『신설』(64-65), 『유리의 덧』(68-69), 『레이디 서울』(66-67), 『사랑의 묘약』(70), 『밤의 무지개』(72), 『불타는 구름』(78) 등 여러 편의 신문 연재 소설은 가족 내의 엽기적이리만큼 충격적인 치정 혹은 비밀을 다룬 통속극의 형식을 띤다. 1950년대는 한국문학사에서 처음으로 여성문인들이 집단적으로 출현한 시기인데, 이들은 대개 출판시장의 확대와 함께 연재소설 창작에 뛰어들고, 연애소설 등 선정적인 대중소설 창작에 주력함으로써 강신재와 유사한 행로를 보여준다. 강신재는 국가 근대화가 본격화되는 1960년대 초중반에 장편소설 창작에 뛰어들어, 주로 중산층 가정을 무대로 삼아 대중성이 강한 작품을 쓰기 시작하는데, 초기 장편들은 주로 중산층 가정과 여성문화를 이상화하지만 후기작으로 갈수록 부르주아 가정의 혼외정사를 그리거나, 폭력이나 가정 범죄 등 가정 영역을 성적 일탈이나 폭력과 연관시킴으로써 가부장적 근대화에 대한 반감을 보여준다. 급기야 70년대로 가면 히스테릭하리만큼 선정적이고 기괴한 소설들을 창작한다. 당시 강신재는 워낙 한 해에 두 개 이상의 연재를 겸하는 식으로 대량생산체제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이들 작품의 완성도는 단편에 비해 미흡하지만 대중문화의 하위문화적 전복성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할만하다.

2. 중산층 가정과 소녀들의 통과제의

강신재 소설의 주요 무대는 중산층 가정이다. 중산층 가정은 단지 소설의 배경에 머물지 않고 여성 주인공이 섬세하고 풍부한 관찰과 탐사 그리고 협상을 거쳐 여성적 주체성을 구축하고 이를 증명하는 장이다. 『청춘의 불문율』(『여원』 연재, 1960), 『그대의 차가운 손』(『여원』 연재, 1963. 1-1964.2), 『바람의 선물』(중앙서적출판사, 1968)은 소녀-여성들이 여성성을 획득 혹은 증명함으로써 사회에 편입되는, 즉 젠더 주체화의 통과제의적 경험을 그리고 있는데, 이러한 입문 의례의 장소로 중산층 가정이 등장하거나 혹은 중산층으로의 편입이 제의의 목표로 제시된다. 중산층 가정은 소녀-여성들이 성정체성을 획득해가는 ‘학교’의 역할을 하며, 소녀-여성들은 가족, 개인적 관계, 사랑, 결혼 등 사적 영역의 의미를 탐구하고, 자신의 내면 속에서 여성적 자질을 발견해내거나 그것을 증명해 가는 통과제의의 시간을 겪게 된다. 물론, 중산층 가정이 완벽한 행복의 성소로 그려지지 않는다. 중산층 가정은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슬픔과 고통의 장소로 제시되곤 한다. 특히 대저택의 웅장함은 음습한 이미지와 뒤섞여 표현되는데, 이때 중산층 가정의 불행 혹은 근심의 원인이 진정한 여성-모성의 부재로 제시됨으로써 모종의 계기로 중산층 가정에 들어온 소녀들은 여성의 미덕을 창출하거나 증명해야할 것을 암묵적으로 요청받는다. 여성잡지에 수록된 이 작품들은 잡지의 주 독자층인 중산층 주부 혹은 대학생, 여고생들의 중산층으로 편입 욕망을 부추기는 한편으로 여성성이라는 고도의 테크놀로지를 학습하고 내면화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을 것이다. 이는 여성작가 혹은 여성문학의 보수성을 암시한다. 그러나 가부장제 사회로의 편입이 궁극적인 목표라 할지라도, 이러한 이야기들 속에는 친밀성 영역의 민주화나 평등하고 화락한 가족에 대한 여성 독자의 기대와 희망이 작동하고 있다.

이들 작품에서 여주인공들이 고아이거나 고아와 유사한 처지에 놓여 있는 점은 주목을 요하는 부분이다. 『청춘의 불문율』의 노영화는 “생활 고라든가 비굴함이라든가 하는 말로 표현되는 그런 것애다가 운명적인 테두리를 씌우는 것”¹³⁾ 같은 일가친척을 버리고 스스로를 고아로 선언한다. 즉, 그녀는 스스로 고아되기를 적극적으로 원하는 ‘자발적 고아’다. 다른 한편으로 『그대의 차가운 손』의 정인은 어린 시절 부모와 헤어진 뒤 미국인 목사의 집에서 자랐으며 『바람의 선물』의 미화는 의사인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는 미국에 장기 출장을 가 고아와 다를 바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렇듯 보호자가 없는 여성 주인공이라는 공통적 특징은 얼핏 신데렐라 스토리를 연상시킨다. 그러나 『그대의 차가운 손』을 제외하면 서사는 결혼으로 종결되지 않으며, 여주인공들은 착하고 순응적이라기보다 명랑하고 지혜로운 편에 가깝고, 극도로 가난한 상태에 놓여있지도 않다. 이들 작품들을 가난하지만 착하고 어여쁜 고아 소녀가 신분이 높은 남자를 만나 구원받는 식의 신데렐라 스토리로 단순하게 환원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이들이 고아 혹은 고아와 다를 바 없는 신분으로 설정된 까닭은 무엇인가? 여기에는 가부장적 전근대가족에 대한 단호한 결별의 의지 혹은 근대화·서구화에 대한 열렬한 기대와 희망이 담겨 있다. 각기 세 명의 소녀·여성이 도착한 혹은 진입을 앞두고 있는 집들은 이층 양옥, 즉 서양식 저택으로서 눈부신 외양을 자랑하며 그 안을 채우고 있는 서양식 물건들의 세련됨과 화사함은 풍요로운 가나안 땅을 연상시킨다.¹⁴⁾ 특히

13) 여원사, 9쪽.

14) 1960-70년대 들어 『주부생활』, 『여성동아』, 『여원』 등 여성지는 잡지 출판이 활성화됨에 따라 대중화되기 시작한다. 여성지는 여성독자들의 근대성 경험과 수용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여성지가 생성해낸 근대적 주거 공간 및 주거문화 담론은 한편으로 중산층 여성들에게 특정한 의미를 제공하고 그들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중산층 근대적 공간을 욕망의 대상으로 제시한다. 김종화·김영찬, 「1960-70년대 여성지에 나타난 근대적 주거공간 및 주거

『그대의 찬손』은 여자 쌍둥이들, 즉 지인과 미선을 근대의 상징인 도시와 전근대의 상징인 농촌에 각각 위치시키고 이들의 서로 다른 인생 행로를 보여주는 대위적 구도를 선보인다. 지인이 속한 도시는 봉건적 억압이나 가난이 없이 지극히 자유롭고 풍요로운 세계이다. 이는 “값이 문제될 수 없는 고급화장품과 그것들을 하루도 게을리 하지 않고 구사하는 정열과 또 냉난방장치에 조절되는 실내 온도와 미용식(美容食)과 장신구”로 “온실의 꽃”(『그대의 찬손』, 14쪽) 같은 지인의 예비 시어머니의 아름다운 외모를 통해 드러나는데, 이러한 재현은 중산층 가정에 대한 여성들의 열광과 선망을 암시한다.

지인이 속한 세계는 풍요롭고 구원의 약속이 들려오는 곳이다. 지인은 비록 어릴 적 부모와 헤어진 트라우마 탓에 알수없는 공포감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그녀를 대리양육한 선교사의 서양식 주택은 이상적이지만큼 풍요롭다. 또한 도시는 남녀가 첫눈에 반해 만나 고아와 부자집 도련님이라는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어 열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는 자유의 공간이다. 고아처녀 지인은 우연히 만난 비행사 윤세, 즉 중산층 남자와 신분적 장애를 뛰어넘어 사랑을 이루는 ‘낭만적 사랑’의 주인공이다. 도시는 봉건사회에서라면 불가능했을 일들이 실현되는 마법의 장소이다. 반면, 지인의 쌍둥이 자매 미선은 어떠한가? 미선은 시골에서 가난에 시달리며 가부장적 아버지의 목소리에 짓눌려 사랑하는 사람과 결합하지 못한 채 중매결혼하고 난 뒤 남편과 시어머니의 학대를 받는다. 봉건적인 마을에서 그녀의 연애는 발견되자마자 추문에 휩싸이며 더럽혀지고, 미선은 가문의 명예를 위해 사랑하지 않는 남자와의 결합을 강요받는다. 특히 미선의 로맨스는 좌절됨으로써 관능을 향유하던 그녀의 육체는 감시당하고 매를 맞는 등 무기력하게 점령당한다. 이러한 대위적 구도는 자유연애의

이상, 풍요로운 중산층 가정이 근대화-서구화에 대한 여성들의 열렬한 동경과 기대를 담고 있는 문화적 표상임을 암시한다.

다른 한편으로 이들 작품들은 이상적인 중산층 가정을 이끌어갈 적극적인 주체로서 여성들의 능력을 증명하는데 치중한다. 『청춘의 불문율』의 기출처녀 노영화는 “괴상한 집안”, 즉 “가족의 구성부터 복잡미묘한 데다가 인물들도 모조리 꾀짜라나, 여하튼 심장에 털이 돋힌 괴물이나 아니라면 배겨나지 못할”(신태양사, 43쪽)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한 서양식 저택 앞에 당도한다. 그녀가 마주한 낮선 가족의 풍경은 침울하다. 주인인 무역회사 사장 김호준은 극상품의 외투를 입고 있지만 고독하고 지친 인상이며, 큰딸 애리는 사치와 허영에 빠져 있다. 또한 큰 아들 영민은 “누구하고 말도 하지 않고, 그러다가는 별안간 발작처럼 큰 소리로 울어대”는 등 병리성의 징후를 풍기며 막내 아들 철민은 가정교사를 괴롭혀 갈아치우기 바쁜 악동이다. 이렇듯 중산층 가정의 상황이 불건강하면 할수록 이들 절망적인 가족의 상태를 개선하는 노영화의 능력은 더욱 빛을 발휘하게 된다. 특히 병리적인 가족 풍경은 주부 학순 여사에게서 기인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순 여사는 “유치하고 촌스러우면서 욕정만 왕성한 부인”(118쪽)이라는 영화의 말처럼 주부 노릇에 미숙한 한편으로 불륜을 저지를만큼 대담하게 그려진다. 영화는 학순여사의 대담성을 “허위나 가식”이 아닌 “무자각”(94쪽)의 증거라고 규정함으로써 고도의 가정 관리자로서의 주부-여성, 여성 계몽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학순여사와 딸 애리의 사치와 허영, 성적 퇴폐 등은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건전한 도덕과 문화가 부재한 당대 한국사회의 병폐를 은유하면서 중산층 교양여성들이 근대화의 이상을 실현할 주체임을 설득한다.

학순 여사의 무자각한 삶은 노영화의 섬세하면서도 통찰력 있는 가정교사 노릇과 대조된다. 진정한 여성의 자질은 궁극적으로 모성성의 획득-증명을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서 모성은 전후 남성작가들의 작품에 주로

나타나는 아름다운 희생자 혹은 향수로서의 모성-여성성과 거리가 멀다. 남성작가들의 소설에서 여성은 향수의 대상인 어머니인데, 이들 작품의 어머니들은 육친애에 기반해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희생적 존재와 거리가 멀다. 여성작가의 소설에서 이상적인 여성-모성은 현명하고 합리적인 태도로 사태를 파악하는 가정의 경영자나, 육친적인 애정을 무자각적으로 쏟아내기보다 뛰어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춘 돌봄의 전문가에 가깝게 그려진다. 이들은 침착하고 사려 깊은 ‘교양여성’에 속한다. 노영화는 명랑하면서도 감성적인 캐릭터로서 현대적인 여성-모성성의 소유자이다. 즉 그녀는 청순가련형이 아니라 명랑당돌하며, 지혜로우면서도 활기에 넘친다. 그녀는 모성의 자질 즉 감정이입의 능력이 뛰어나 전쟁고아인 윤준의 고독을 읽어내며, 가정교사-대리 모성으로서 악동 철민이 마음에 지른 빗장을 허물어버린다.

다른 한편으로 『그대의 찬 손』은 어떠한가? 『그대의 찬 손』에서 부르주아 가정의 유일한 결핍은 마땅한 며느리를 들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소설은 부르주아 가정의 완벽한 왕자인 윤세의 아내 찾기를 플롯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진정한 여성의 기준을 발굴하고 확정하는 과정이 된다. 이 과정에서 남다른 감수성, 감정이입의 능력은 중산층 여성이 될 자질로 암시된다. 대체로 신데렐라스토리의 여주인공들은 무능력하고 늘 남자의 도움을 요청하듯 위기에 처해 있다. 주인공 지인은 유년기에 가족과 결별한 후 이유모를 공포에 시달리며, 이러한 트라우마가 남긴 불안의식으로 두 눈 가득 눈물을 머금고 있는 청순가련형의 여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윤세와 같은 의젓한 남자의 보호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인은 뛰어난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을 발휘해 위기의 순간에 스스로를 지키고 타인을 설득할 수 있으리만큼 현명하고 당차다. 지인에게 위기가 찾아오지만 그녀는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다. 지인은 사랑이 좌절당한 후 절망한 미선의 애인에게 미선과 닮았다는 이유로 납치를 당한다. 그러나 순전히 대화

로서 납치범의 마음을 돌이켜 세우는데, 이는 그녀가 커뮤니케이션 혹은 협상의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을 암시한다. 지인이 비록 고아임에도 불구하고 중산층 가정의 며느리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협상의 자질 때문이다. 타인의 마음을 읽고 돌보는 능력을 통해 미선의 애인이 자신의 왜곡된 감정을 스스로 돌이켜 보게 유도했기 때문이다. 이는 지인이 감정의 전문가이자 상처 치유자로서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암시한다. 반면 전여사의 며느리, 즉 윤세의 형수들은 전여사의 성에 차지 않는 혹은 집안의 근심 덩어리인데, 이는 그녀들이 절제와 협상 혹은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맏며느리 윤준택은 “너무 세찬 자의식과 행동력 앞에 때때로 타협점을 유실하”는 “초신식 며느리”(21쪽)이며 둘째 며느리 미나는 전직 “나이트클럽 댄서”로 “너무 자주 웃으며” “판동서의 때로는 노골적인 거만을 전혀 무저항하게 받아 넘”(23쪽)기는 자의식이 부족한 인물이다. 서양여성에 비유되는 윤준택의 강한 자아의식과 미나의 무성격, 무개성은 이들이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적 요소인 자기 규제와 상호존중 등 협상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증거로 부정적으로 의미화된다.

그렇지만 여성성의 어두운 부분을 통해 중산층 가정의 표상인 이상적 여성상에 대한 두려움 혹은 반발감의 징후 역시 드러난다. 『바람의 선물』은 소녀들을 주독자로 삼은 “소년소설”로 다정하고 든든한 아버지의 죽음으로 화목한 가정상이 깨진 뒤 미화가 소녀기를 거쳐 여대생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미화에게 성장은 보호자 찾기와 성숙한 여성성의 자질을 갖추는 과정이 된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여성성은 비정상성 혹은 광기의 이미지와 결부되어 있다. 미화가 방학을 보내게 된 오박사네는 어엿한 중산층이지만 “밤이면 너울너울 춤을 추”는 안주인의 광증 탓에 이상적 가족이 되지 못한다. 그런데 미화 역시 광기의 징후에 시달리고 있다. 미화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즈음부터 불안에 시달리기 시작

한다. 병든 아버지가 입원한 요양원에서 미화가 들었던 여자의 비명소리가 일깨운 두려움, 탐정소설에 실린 미이라 이야기가 안겨주는 공포와 슬픔, 멋진 소방서장이었지만 광증에 시달리다 죽은 옥순이 아버지와 그로 인해 고아가 된 가여운 친구 옥순이의 존재는 미화를 곧잘 불안과 두려움의 감정에 사로잡히게 한다. 급기야 먼 곳에서 요양 중이던 아버지의 죽음으로 미화의 불안의식은 고조된다. 이렇듯 『바람의 선물』은 불안의 징후로 가득한 작품으로서, 미화가 불안의 감정을 극복하고 성숙한 여성이 되기 위한 형식으로 여행이 주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서사가 촉발된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역설적으로 여성성의 어두운 비밀들이 불안의 상상력과 함께 은밀히 전시됨으로써 이상적인 여성성-모성성과 배리되며 결국 여성성은 수수께끼로 남는 효과가 발생한다.

물론, 미화의 불안은 성장하기 전에 아버지-보호자를 상실하게 된 어린 아이에게 불가항력적인 폭력이 남긴 결과라기보다 여성성 획득의 실패에 대한 미화 자신의 두려움에 속한다. 사춘기의 미화는 유령인 양 흰옷을 입고 춤을 추는 오박사 부인을 보고 공포감을 느끼는데, 여기에는 여성성 획득의 실패에 대한 미화 자신의 불안과 공포가 투사되어 있다. 아버지의 죽음, 즉 여자아이의 성장을 인도할 아버지-남성의 부재로 인해 불안이 촉발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오박사네 집을 무대로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성장의 위기에 처한 미화의 여성으로서의 입사식(入社式)이 치러지고 있는 것이다. 이때 나르시시즘은 이상적 여성의 자질을 결여한 증거로 제시되기 때문에 미화의 입사식은 희생적 모성의 자질을 획득해 가는 과정으로 제시된다. 오박사의 아이들은 자신의 어머니를 “말이야 바른대우 우리 진짜 어머니두 이상적인 mother라고는 하기 어려웠지. 밤낮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쭈신다 하고 누워만 있다가도 극장엘 간다거나 들놀이를 나가자는 공론만 나오면 일등으로 뛰어 일어나 앞장을 서던 어머니. 제일 맛 나는 음식은 자기가 잡숫고 무엇이든지 좋은 것은, “나 가지겠다”고

서슴치 않고 손을 내밀던, 어린애 같던 어머니. 나중에는 정말 조금 머리가 이상해져서 밤이면 곧잘 소동을 일으켰다”(102쪽)고 회고한다. 광기를 겪었던 본부인이 죽은 후 오박사와 결혼한 새어머니 역시 유아적이고 속물적이며 허영심 강한 나르시시즘적인 인물로 성숙한 여성성을 결여하고 있다. 소설은 미화가 어머니를 여의고 미성숙한 새어머니 밑에서 오래도록 애정결핍에 시달려온 갑·을·병·정에게 연민을 느끼고, 이들에게 연인-어머니가 되어 주는 과정을 담는다. 미화는 이들에게 요리를 해 먹이며, 다툼을 중재하고, 막내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으로 어머니 노릇을 충실하게 수행해낸다. 이렇듯 미화는 오박사네의 아이들에게 오박사 부인을 대신해서 어머니 노릇을 수행해냄으로써 긍정적인 여성-이상적인 어머니의 자질을 갖추어 간다. 그러나 오박사 부인의 광기는 여성성의 어두운 요소에 대한 두려움이 투영된 것이기도 하다. 서양식 주택과 여성의 광기는 60년대 후반 60년대 후반 강신재 소설에 종종 등장한다. 거대한 저택의 비밀의 방은 집의 안주인이 자살을 하거나 미쳐서 감금된 곳으로서 가부장적 중산층 가정의 비밀과 허위를 담고 있다.¹⁵⁾

3. 희생자 의식과 심미적 불륜 소설

60년대 여성잡지 연재소설의 가장 인기 있는 모티프는 중산층 가정의 불륜이다. 이 시기 60년대 사회의 친밀성 구조의 변화와 열정의 재배치의 양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정은 전통적인 가부장제 아래의 혈족과 대가족의 기능을 강조한 것에서 아내와 남편의 돈독한 애정과 이러한 부모

15) 강신재의 『유리의 덧』(조선일보, 1968.4.27-1969.1.24)에서 남자주인공의 어머니는 광인으로서 이층 방에 감금되는데, 그러한 어머니에 관한 기억은 남자주인공에게 치명적인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

와 아이들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핵가족 형태로 변화해간다. 여성 자신의 평등하고 화목한 가족에 대한 기대 역시 커지면서 중산층 가정은 여성들의 진정한 자아실현의 장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6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중산층 가정은 혼외정사, 폭력, 범죄, 죽음 등 어두운 비밀이 도사리고 있는 거짓 성소로 재현된다. 이렇듯 사생활 영역의 비밀스러운 일들이 그 껍데기를 벗고 노출되거나 환상의 베일이 벗겨지는 과정에서 사회의 관습과 제도와 믿음들이 재검토되며 성의 정치학의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다. 이는 60년대 후반 근대화의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면서 근대화에 대한 환타지가 깨져나가는 것과 관련이 있다. 60년대는 봉건제의 흔적인 처첩제를 완전하게 철폐하지 못했으며, 가정소설 속의 폭군적인 남성인물들과 고립되고 고독한 여성 주인공들을 통해 드러나듯이 친밀성의 민주주의를 성취하지 못했다. 60년대 중후반의 소설들은 중산층 가정의 허위를 주로 불륜 모티프로 담아낸다. 안전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중산층 여성들이 우연한 계기로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다는 설정은 여성들의 희생자로서의 위치를 암시한다. 남편의 불륜은 여성이 자신의 소외된 위치를 깨닫고 허위의식을 벗어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각성의 모티프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여성들이 불륜을 저지르고 그러한 일탈을 옹호하는 일군의 작품 역시 존재한다.

여성의 불륜은 사회적 규범을 이탈하고 훼손하려는 전복적 욕망을 담아낸다. 주목할만한 것은 남성의 불륜이 이기적인 추구 혹은 성적 욕망으로 환원되는 데 반해 여성의 불륜은 지극히 탈통속적이고 심미적으로 조명된다는 사실이다. 전작들에서처럼 여전히 부르주아의 거실은 과장스러울 정도로 풍요롭지만 ‘낭만적 사랑’ 모티프에 대한 열렬한 동경과 이상은 눈에 띄게 쇠퇴한다. 낭만적 사랑은 불륜의 가족 풍경으로 대치된다. 대신에 불륜의 정념이 주는 미학적 쾌락이 소비되는 양상이 두드러진다. 『신설』 『이 찬란한 슬픔을』은 60년대 중후반 여성문학의 하위범주인 연애소

설의 일면을 보여준다. 이 소설들을 로맨스 드라마나 할리퀸 문고류 등 일정한 관습에 충실한 장르문학이라 할 수 없지만, 남편의 배신으로 실망한 주부가 진정한 사랑을 만나 행복에 젖지만 결국 사회적 압력으로 결별한다는 식의 법칙성을 보여준다. 이들 소설들은 비록 감상적이고 진부하지만, 남편의 외도나 부부의 불평등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공식적인 장르법칙에 충실한 상업소설로 치부하기 어려우며, 결국 여성들이 가정으로 귀환하는 식의 보수적인 결론을 따르지 않는다는 점도 이색적이다. 『신설』 『이 찬란한 슬픔을』은 모두 중산층 주부가 남편의 불륜을 계기로 자신의 종속적 위치를 발견하고 허위의식을 벗어난다는 점에서 불륜을 자아각성의 모티프로 제시한다. 남편의 불륜을 알아차리는 순간 실망한 여성들은 파열된 가정을 수습해보려 한다. 그러나 이내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대신에 그녀들은 마치 배신당한 세월의 보상인 양 갑작스럽게 등장한 옛 사랑의 존재와 마주하고 급격히 불륜의 사랑에 빠져들고 두려움과 정념의 쾌락을 반복적으로 오간다. 이들 작품들은 관능적이고 일탈적인 연애소설들로 대중 독자에게 읽기의 쾌락을 선사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사회적 처벌의 두려움을 자아낸다. 물론 이들 작품에서 불륜남녀의 사랑은 비극의 종착역에 도착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그러나 처벌받은 사랑이 비장미를 획득함으로써 오히려 불륜은 지극히 고결하고 이상적인 사랑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이를 욕망에 대한 처벌로 손쉽게 환원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신설』의 소연은 끝내 자살하고 『이 찬란한 슬픔을』의 명혜는 끝내 사랑하는 이를 이국으로 떠나보낸다. 이러한 귀결은 가정의 도덕, 사회적 윤리를 바로잡자는 계몽적 목소리로 해석되기 쉽다. 윤병로는 『신설』의 책 뒤에 실린 해설에서 주부 소연의 자살이라는 비장한 결단을, 타락한 시대에서 애정윤리를 지키려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기실 설득력이 없다. 이들 불륜녀들은 자신의 사랑에 대해 결코 반성하기는 커녕 당당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도덕화

된 불륜을 제시함으로써 법 밖을 벗어난 사랑을 적극 옹호하고 사회적 규범이나 신념을 회의하게 만든다.

이들 작품에서 불륜의 사랑은 결국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불륜녀들은 사회적 윤리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쾌락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숭고한 사랑을 봉인하기 위해 죽음 등 파국을 선택하는 비장한 의지를 드러낸다. 여기에는 자신의 안전과 평안을 댓가로 지불하면서도 사랑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심미주의자의 역설적 존재론이 자리잡고 있다. “심미주의(aestheticism)란 말은 널리 아름다움에 대한 신앙을 의미한다. 즉 예술작품 속에서라든가, 우리를 둘러싼 세계에서 볼 수 있는 모든 매력있는 것들 속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는 아름다움에 대한 신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나아가 “아름다움을 다른 가치들과 비교하다든가 심지어는 상치시킴으로써 아름다움의 중요성을 새로이 신봉하는 것까지”(『심미주의』, 7쪽) 의미한다. 심미주의자는 아름다움을 신봉함으로써 현실세계와 단절된 미의 낙원 속에 거주하며 세상과 담을 쌓은 이가 아니라, 아름다움을 통해 뭔가와 대결하는 혹은 주장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유명한 심미주의자 월터 페이터는 『르네상스사 연구』¹⁶⁾에서 위대한 정열은 삶, 사랑의 환희와 비애, 우리에게 일어나게 마련인 사심이 있건 없건 여러 형태의 열광적인 활동에 대하여 참여한 느낌을 갖게 하여 줄지 모른다. 우리에게 이러한 다양하고도 참여한 의식의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은 다름 아닌 정열이라는 점을 확신하라. 이러한 슬기 가운데에서도 시적 정열,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 예술을 위한 예술에 대한 사랑은 가장 중요하다. 예술은 순간순간의 삶에, 그리고 오직 그 순간만을 위하여 고귀한 특성을 숨김없이 부여하여 주려고 한다고 했다. 즉, 심미주의는 삶을 정열적으로 경험하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심미주의자는 오만한 쾌락주의자의 형상

16) 월터 페이터, 『르네상스사 연구』, 1873.

을 띠며 이는 체제를 위반하는 욕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심미주의자는 사물의 판단의 심급이 바로 자기에게 있다고 믿는데, 그것은 사회적 규범을 넘어서는 욕망이 될 수 있다.

『신설』에서 심미주의자 소연은 윤준과의 불륜이 세상에 발각되어 자신의 사랑이 추문이 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목숨을 끊는다. 『이 찬란한 슬픔을』의 명혜와 기환이 연애하는 장면은 육체의 물질성을 완전히 감추고 미적 은유의 의장을 펼쳐 보인다. 특히 두 사람이 사랑을 확인하는 해변에서의 밤은 극도로 신비롭고 우미하기 묘사되기 때문에 서정소설의 분위기마저 짙게 풍긴다. 『신설』의 소연이 정사 끝에 자살하는 것과 달리 『이 찬란한 슬픔을』은 연인을 떠나보내고 혼자 남아 죽은 자들(아들과 결혼 전의 애인)을 애도하며 살기로 하는 등 불륜남녀는 이들의 결합을 막는 구체적인 장애물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별을 고집한다. 이는 모든 것을 흐릿하게 만들고 훼손하는 시간의 위력에 맞서 사랑의 기억을 영원히 봉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불륜이 육체의 감각이 아니라 저항의 포즈임을 암시한다. 불륜남녀는 현실에서 제도적 인정을 받으며 온전히 결합할 수 없기 때문에 역으로 초월적 사랑의 승리자가 된다. 우아하고 도덕적인 불륜의 역설은 세속적 심미주의라고 이름붙일만한 것으로 여성통속소설의 문법이다. 심미주의는 기실 가부장제의 금기를 깨뜨리는데 대한 두려움과 처벌에 대한 공포가 투사된 것이며, 어떤 변화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무기력한 이들의 심정적 도피의 양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60년대 불륜소설의 이중 문법을 동의와 저항의 이중구조가 아니라, 동의하는 척하면서 기실 저항하는 방식으로 해석해야 한다. 심미적 불륜은 여성들의 일탈과 욕망의 추구를 옹호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불륜담은, 결혼은 사랑의 무덤이라는 식의 통속화된 발상을 통해 결혼제도를 사랑의 적대자로 위치시킨다. 대학강사 성희는 결혼은 사랑의 무덤이라고 주장하며 유부남 권복기의 첩-애인이 되기를 자처한다.

성희는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부도덕을 저지르지만 어떤 불순물도 섞여 들지 않는 애정을 추구하기에 순수하고 주체적인 여성으로 그려진다.

4. 여성·여성성에 대한 파괴적 환상의 미학

앞서도 말했듯이 6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연재소설에는 치정, 범죄, 폭력, 광기, 비밀, 성적 난잡함 등 자극적이고 엽기적인 소재들이 빈번히 등장한다. 중산층 스위트홈에 관한 당대의 언설과 달리 가정은 도시산업 사회의 냉정함이나 삭막함으로부터 개인을 지켜줄 피난처이거나, 건전한 문화의 장소로 그려지지 않는다. 특히 60년대 후반 강신재의 소설들은 왜곡된 남녀관계나 중산층 가정생활의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성격을 드러낸다. 급기야 70년대에 이르면 선정적 양상을 과하게 풍기면서 그로테스크하고 엽기적인 이야기들이 빈번히 등장한다.¹⁷⁾ 근친상간, 시동생과 며느리의 연애, 요부의 복수와 부르주아 가정의 파멸, 딸의 정사를 엿보는 아버지, 시아버지의 정사를 엿보는 며느리 등 기괴하고 선정적인 모티프가 등장하는 것이다. 주로 교외에 위치한 이들 부르주아 가정 혹은 별장은 추악한 비밀 위에 위태롭게 서 있다. 이렇듯 기괴의 상상력은 기실 근대화에 대한 훼손과 공격의 의미를 담고 있는 하위문화적 상상력이다. 67년 여성잡지 『여상』에 연재된 『숲에는 그대 향기』는 한국문학사의 10대 베스트셀러에 속하리만큼 대중의 인기를 끌었다. 이 작품은 말랑한 연애소설에

17) 『밤의 무지개』(강신재, 1972)에서 “섹스어필한 요기”인 경애는 미연의 아버지 박민규에게 접근해 그의 재산을 빼앗으려 미망인인 양 가장한다. 『우연의 자리』(강신재, 1970)에서 마이는 부유한 사업가 마씨네의 장남과 연애 결혼해 주위의 부러움을 사지만, 시아버지와 남편이 대저택의 은밀한 별실에서 저지르는 부도덕한 일을 목격하게 되고 그녀 자신은 남편의 배다른 동생과 불륜의 사랑에 빠진다.

서 그로테스크한 선정소설로 급진전하는 과정에서 발표된 작품으로서, 여성대중소설의 하위문화적 전복성을 엿보게 한다.

이 소설은 의대생 태식이 자신의 약혼자 두루미를 납치하고 결국 죽음으로 몰아넣는다는 골자를 취하고 있는데, 태식과 루미는 다소 극단적으로 부풀려졌지만 근대화의 이상적 표상, 즉 시대의 전형에 가깝다. 루미의 비참한 죽음은 폭력적인 근대 남성 혹은 근대화에 대한 여성들의 두려움의 표현이자 여성 혹은 여성성이 희생 혹은 배제된 데에 대한 알레고리로서 기능한다. 냉철하고 이성적인 성격의 태식은 의대생으로서 해부를 즐긴다. 태식은 장래가 촉망되는 엘리트이자 부잣집 도련님으로서 어린 시절 쥐를 잔인하게 살해하고서 쾌감을 느꼈던 이후부터 기이한 욕망에 사로잡혀 성인이 된 현재까지 나비, 곤충 등을 채집하고 해부한다. 태식은 어떤 수단을 취해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 정복하려는 집요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전형적인 개발자 혹은 폭력적인 남성성의 표상이다. 그는 마치 신비로운 곤충에 매혹된 미치광이 과학자처럼, 지극히 순결하고 연약하기에 매혹된 두루미를 파괴함으로써 소유하고 마는 새디스트이다.

금속성의 차가운 기계를 연상시키리만큼 냉혈한인 태식은 아름다운 자연을 파괴하는 것에서 관능적 만족을 얻는 파괴자로서의 근대문명의 상징이기도 한다. 태식이 근대적 개발자의 표상인 까닭은 그가 자연-여성을 정복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문화의 상징기호학에서 여성은 늘 자연에 비유되어 왔으며, 여성-자연을 소유하고 지배하려는 욕망은 근대 남성의 심리적 메카니즘에서 발견된다. 개발자의 속성은 “아! 루미의 몸은 얼마나 나긋나긋하고 탄력 있게 부드러웠을까! 때리거나 힘을 주어 누를 때 그 뽕뽕뽕 터질 듯한 감촉을 다른 어디에서 맛볼 수가 있단 말인가!”(272쪽)라는 서술이 보여주듯이 여성성에 대한 지극한 갈망으로 드러난다. 여성은 한편으로는 지극한 갈망의 대상이기 때문에

파괴의 대상도 된다. 여성-자연은 부드럽고 순결한 생명으로 근대적 개발의 회의와 고통을 자극하고 향수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성성을 수립하기 위해 여성-자연은 정복 혹은 제거되어야 한다. 즉, 여성-자연을 완전하게 소유 혹은 파괴하는 것이다. 강신재의 여러 편의 작품에서 드러나듯이 엘리트 남성들은 매우 이기적이며 특히 여성에게 가혹하리만큼 정신적, 신체적 폭력을 일삼는다.

의사, 변호사 등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엘리트인 남성들은 근대화를 이끌어 간 중산층의 핵심세력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들의 이기적인 욕망과 냉혹한 성격은 60년대 산업화가 의지적이고 저돌적이며 진취적인 남성성에 기반을 둔 광공업을 산업의 중추로 삼았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두루미 역시 한국근대화가 여성에게 요구한 미덕, 즉 이타적이고 순종적인 여성성을 극단적으로 수행한다. 루미는 지극히 아름다우면서 한없이 연약하고 백치에 가까우리만큼 의견이 없이 순종적이다. 한미한 중산층 집안 출신인 루미는 순종적인 딸로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태식과의 경제혼을 받아들인다. 성인 여대생임에도 불구하고 미성숙하고 병약해 소녀의 이미지에 가깝다. 그녀의 죽음은 중산층 여성성을 극단적으로 수행한 결과다. 태식과 루미는 해부학자와 아름다운 나비의 관계를 형성한다. 태식은 나비를 박제로 만들거나 훼손함으로써 그 아름다움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려 한다면, 나비는 태식을 매혹시키리만큼 아름답지만 무력하게 감시와 해부의 대상이 될 뿐이다.

『숲에는 그대 향기』는 루미로 상징되는 순종적 여성성과 그러한 여성성을 문화적 이상으로 표상하는 사회에 대한 여성작가의 공격적 욕망을 담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반항하지 않는 소녀…… 반항도 하지 않고 반발도 하지 않는 그녀의 유연함을-그 유례없는 온순함을-나는 무척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사랑해

왔지만, 내가 그 일로 하여 더욱 소중히 그녀를 다루었듯이 그렇게 신중하게, 다른 모든 사람들도 할 것인가를 생각해볼 때 나는 가끔 의혹의 구름에 싸여 불안해지는 일도 없지는 않았다. (그녀는 그녀 자신의 주장을 갖지 않는다……) 이것은 어쩌면 언뜻 생각하기보다 훨씬 무서운 일이 아닐까”(전집. p.168)

이러한 서술은 순응적 여성이 결국 희생자일 수밖에 없음을 암시하며 여성성에 대한 염오와 공격의 욕망을 암시한다. 이는 태식만이 아니라 루미를 사랑하는 영길 역시 루미 - 여성의 아름다움에 매혹되면서도 그녀를 노골적으로 혐오하고 경멸하는 데서 드러난다. 루미는 영길을 사랑하지만 영길의 아버지가 국회의원 선거에 떨어져 가게가 기울자 부잣집 아들 태식과 약혼한다. 중산층 아들인 태식과의 미래는 앞날을 보장하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루미의 무의지성은 그녀의 좃대없음 혹은 속물성과 통한다. 그녀는 태식에게서 석연치 않은 감정을 느끼지만, 태식이 내민 아름다운 보석을 거절하지 못하는 등 태식에게 무력하게 이끌려 다닌다. 즉, 여성들의 미덕인 순응성이 역설적으로 여성들의 한계 혹은 함정으로 암시되는 것이다. 반면 루미와 대조적인 여성인 세라는 군부대를 찾아오리만큼 영길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하며 욕망에 당당한데, 영길은 결국 세라의 구애를 받아들임으로써 작가는 새로운 남녀관계, 새로운 여성성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루미로 상징되는 중상층 가정문화 혹은 순종적 여성성에 대한 여성작가 자신의 파괴적 욕망은 루미가 주검으로 퇴장하고 세라가 새시대의 여성으로 등장하는 데서 드러난다.

여성들의 희생자 의식, 가부장제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는 『사랑의 묘약』(중앙일보, 1970.8.21-1971.8.20) 등의 작품에서도 드러난다. 『사랑의 묘약』에서 까탈스러운 성격의 ‘창’은 유미주의자로서 아름다운 누이 숙현을 사랑한다. 근친상간의 결과 숙현은 자살해 자신의 집 창고의 다락방 위에서 흉측한 모습의 시체로 발견된다. 그리고 준기의 형수 민애는 성적

방종의 대가를 지불하듯 집단성폭행이라는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이렇듯 여성들의 희생의 장면은 대단히 기괴하면서도 시각적으로 강렬한 이미지로 재현되는데, 여기에는 오랫동안 짓눌린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의 공격성, 탈승화의 욕구가 깔려 있다. 악녀들의 희생자로서의 위치를 부각 시킴으로써 모든 책임을 악녀에게 전가하는 사회의 폭력성을 환기시키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악녀들은 기실 성적 학대의 희생자거나, 가계를 유전해 온 색정적인 피를 타고났지만 사회를 정화하기 위해 자살을 선택하거나 외국으로 떠나버림으로써 동정을 자아내기도 한다. 이들은 마치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여귀처럼 끈적한 정욕의 지배를 받는데, 이렇듯 성적으로 과잉된 여성에 대한 재현은 역설적으로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가부장적 감시의 억압성을 환기시킨다. 강신재는 과잉성애화된 여성을 패러디하면서 퇴행적인 성적 욕망으로 뒤틀린 기형적인 이미지의 악녀들이 중산층 가정을 위기로 몰아넣는 과정을 보여주기도 한다. 펠스키는 여성 괴물의 원형으로서 악녀의 도상이 대중소설에 빈번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남성 독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여성 독자들에게도 잠재적인 호소력을 발휘한다”고 지적하며, “문화적 스테레오 타입으로서 팜프파탈이 어떤 여성들에게는 정숙한 가정적 여성성 아니면 ‘무성(sexless)’의 페미니스트 악녀라는 양자택일적인 상투적 이미지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팜프파탈은 권위와 정력을 강력한 성적 능력과 결합시키면서 남성의 세계와 가치에 대한 경멸을 오만하게 표현하기 때문이다.”¹⁸⁾ 이렇게 본다면 악녀를 남근 권력에 도전해 가부장제가 구축한 젠더의 경계를 흐뜨리고 위협하는 여성인물로 재조명할 수 있다. 여기에는 중산층 가정문화 담론 위에 구축된 여성성을 공격하고 내파하려는 여성의 욕망이 작동하고 있다.

18) 리타 펠스키 지음, 김영찬, 심진경 역, 『근대성과 페미니즘』, 거름, 1998, 269-318쪽.

5. 결론

1960년대는 조국근대화와 도시화라는 국가의 프로젝트에 전국민이 동원되면서 개인의 일상적 삶이 거대 목표의 틀 안에서 구성되고, 이것이 보릿고개와 전쟁을 경험한 후 물질적 풍요와 계층상승을 꿈꿔 온 대중의 갈망과 중첩되면서 욕망의 동형을 형성한 시기이다.¹⁹⁾ 조국근대화라는 거대 목표가 정치, 경제적인 제도를 통해 구현되면서 전근대적인 삶과의 단절과 결별이 신앙 혹은 규범처럼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와 함께 도시는 근대의 경험, 생활을 재조직하는 근대성의 역사가 새로이 쓰여지는 장소로 등장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시 중산층 가정은 근대적 개인이 갈망하는 절대적인 행복의 성소로 제시되면서 ‘스위트 홈’이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쓰이게 된다. 중산층 가정은 자본주의 도시 공간 속의 지혜로우면서도 아름다운 주부, 도시의 물질성, 사적 영역의 합리화 및 효율화, 서구적 생활문화와 사생활의 신비를 중심으로 대중의 집단 소망의 이미지로 떠오르게 된다. 여성화된 중산층 담론은 여성독자에게 더욱 더 열광적으로 소비되었다. 60년대 이후 등장한 여성잡지들은 도시공간의 공적 영역부터 사적영역인 침실의 사생활에 이르기까지 그 취재 영역이 광범위하며, 논설에서부터 생활정보기사 등 구성이 다채로운데, 사회, 가정, 문화, 일상 등의 각각의 범주를 공통적으로 아우르는 것은 도시 중산층의 이상화된 삶의 표상이다.

도시 중산층 가정은 여성독자에게 친밀성의 민주주의와 여성적 권력을 갖는 것에 대한 기대를 자아냈다. 여성지는 전통과 구분되는 근대적인 도시의 거주지를 통해 시어머니와 며느리 공간의 독립적인 분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서양식 침실의 에로틱함, 과학적인 주방도구를 활용해 여가

19) 정영희, 「1960년대 대중지와 근대 도시적 삶의 구성」, 『인문과학연구』 제 9권 3호, 2009. 9, 471쪽.

시간에 독서를 하는 주부, 고단하고 피로한 남편을 돌보는 여성의 기술, 합리적 살림으로 가정경제를 일으켜 가정을 이끌어가는 파트너로서의 주부, 아이의 잠재력을 키워주는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중산층 주부에게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을 경영하는 권력을 부여한다. 여성잡지에 연재된 여성작가의 연재소설들은 재현 영역에서 여성들의 중산층 가정 혹은 근대화에 대한 동의를 설득하는 장으로서 이들 기사들과 상호보충적인 관계를 취한다. 여성잡지의 연재작가의 다수는 기혼 주부 작가이며, 소설 속 주인공들은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젊은 기혼자 여성이며, 중산층 가정이 소설이 주된 무대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60년대 초중반과 달리 근대화의 성과가 가시화되는 후반부에 이르면 여성작가들의 중산층 가정 소설들의 재현은 극도로 불연된 양상을 보인다. 사회가 여성성의 미덕을 찬미할수록 여성들의 희생의 비극성이 고조되고, 중산층 스위트홈에 대한 낭만적 환타지는 공포의 그림자와 뒤섞인다. 특히 강신재의 일련의 소설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사의 중산층 가정을 서사의 무대로 등장시킴으로써 성평등에 대한 여성들의 동경과 회의, 여성적 권력에 대한 기대와 불안 등을 표현해 냈다. 중산층 가정을 무대로 펼쳐지는 선정적이고 기괴한 스토리는 단순히 여성문학의 통속적, 대중적 요소로 환원될 수 없는 것으로 근대화, 중산층 가정, 여성성 등에 담긴 비밀을 포착하려는 의욕의 소산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강신재, 『청춘의 불문율』 (『여원』 연재, 1960)
강신재, 『그대의 차가운 손』 (『여원』 연재, 1963.1-1964.2)
강신재, 『바람의 선물』 (중앙서적출판사, 1968)
강신재, 『신설』 (한국일보, 1964.9.11-1965.7.22)
강신재, 『이 찬란한 슬픔을』 (『여상』, 1964.7-1965.?)
강신재, 『숲에는 그대 향기』 (『여상』 연재, 1967년)
강신재, 『사랑의 묘약』 (중앙일보, 1970.8.21-1971.8.20)

2. 논문과 단행본

- 김예림, 「1960년대 중후반 개발 내셔널리즘과 중산층 가정 판타지의 문화정치학」, 『현대문학의 연구』 32호, 2007, 339-375쪽.
- 김은희, 「일·가족, 그리고 성역할의 의미-한국의 산업화와 신중산층의 가족 이념」, 『사회와역사』 제39권, 한국사회사학회, 1993. 6, 81-120쪽.
- 김종희, 김영찬, 「1960-70년대 여성지에 나타난 근대적 주거공간 및 주거문화 담론에 관한 연구」, 『미디어·젠더·문화』 10호,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08.10.
- 다나자키 아즈코, 「현대 한국중산층 주부역할 형성과정에 관한 분석 - 6,70년대 여성잡지를 중심으로」, 서강대 석사논문, 2001.
- 리타 펠스키 지음, 김영찬, 심진경 역, 『근대성과 페미니즘』, 거름, 1998, pp.269-318.
- 배성동, 「중산층의 정치적 의의: 모든 논의들의 종합에서」, 『청맥』 66년 5월호, 청맥사.
- 신 건, 「1960-70년대 근대화 프로젝트와 여성담론에 관한 연구 - 여성단체협의회회의 『여성』지 분석을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논문, 2001.
- 신광영, 『한국의 계급과 불평등』, 을유문화사, 2004.
- 신용하, 「중산층 논쟁의 총결산」, 『청맥』, 1966년 8월호
- 윤병로, 「현대 여류 작가의 문학적 성향」, 『한국현대소설의 탐구』, 범우사, 1980
- 정영희, 「1960년대 대중지와 근대 도시적 삶의 구성」, 『언론과학연구』 제 9권 3호, 2009.9.

홍두승, 「중산층의 확대와 양극화의 해법」, 『한국사회학회 기타간행물 한국사회학회 중산층 역할과 사회발전 제1차 포럼』, 2006.3.

3. 기타

고영복·송건호·송욱·신일철, 「<방담> : 문화생활 없는 한국- 문화적 현실과 정치적 현실」, 『사상계』 146호(65년 5월호), 사상계사, p.201.

Abstract

A Domestic Novel of Middle Class Families and the Imagination of anxiety :

Subject to a full-length novel series by Kang shin jae.

Kim, Eun-Ha

Showing a result of the modernization serious in the latter third of 1960s, middle class families were represented as the core for the modernization, 'Happy house and home' was an image of symbolic space in which hold the point of conflict for Modernity in Korea and then solving them to appear a contradictions and abuses as well as collective desire lead to the consent of popular for modernization.

In such process, a woman was presented as a subject who raising the healthy middle class culture. The middle class woman-housewife was a symbol of a sweet home that was rich materially and healthy morally, and came about the phenomenon of 'family worship' as enough to be 'a wise mother and good wife' was being an idea of self-reality for women. This suggested that a modernization project progressed to connect mutually between a modern nation, home and a woman.

On the other hand, middle class families were a subject of woman's desire for the private, in which it would be equal and intimate.

Getting toward the end of 60s, however, a serial novel that a woman was a reader was made visible doubt of a sweet home. The more a society

praised, the higher was to be a tragedy for women's sacrifice, and the romantic fantasy for sweet middle class families confused with a shadow of dread.

This study tried to see it as the result of desire to seize a secret that contained in modernization, middle class families and femininity rather than a popular and simply restored to an original nature of a common and popular aspect of women's literature subject to a sequence novel by Kang shin jae. It was represented that women's adoration and doubt for gender equality and women's expectation and anxiety for power as presenting successful middle class families to the stage of narration. (key words : middle class families, the middle class woman, family worship, a modernization project, women writer, a popular novel, sub-cultural violation, anxiety)

▣ 위 논문은 2009년 11월 01일 투고되었고, 심사를 거쳐 11월 21일 게재가 확정되었음.